

청정 바다에서 자란 진도돌김 위판 '시작'

진도군, 120kg 한 망에 평균 15~17만원 거래 4500만원 위판고 올려...12월초까지 수확 예상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바다에서 자란 겨울철 별미인 '돌김'이 지난 13일 진도군 고군면에서 수확과 위판을 시작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고군면 회동 위판장 물양장에서 실시된 위판에는 32t의 돌김을 위판했으며, 120kg 한 망에 평균 15~17만원에 거래돼 4,5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올해산 첫 햇김은 진도군 고군면 일대 김 양식어장에서 생산된 조생종 품종인 잇바디 돌김으로, 곱창처럼 길면서 구불 구불하다고 해 일명 '곱창 김'으로 불린다.

곱창 김은 맛과 향이 만생종인 일반 돌김에 비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12월초까지 수확이 예상된다.
진도군의 2021년산 김 양식 규모는 1만4,813ha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7만7,000t의 김 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위판고가 1,000여억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은 지난해 6만7,672t을 생산, 756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양식산업담당 관계자는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김 육·해상 채묘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며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완도군, 역사문화관광 중심지 재도약

완도군은 2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충무공 유적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공원과 관광 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고군면 충무 일원에는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년까지 4년에 걸쳐' '고급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고급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은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이 이끄는 조맹 연합수군이

85억 투입, 전시관·생태공원 등 갖춘 이충무공 기념공원 190억 투입해 고급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

리 묘당도 일원에 85억 원의 사업비로 충무공 이순신 전시관 건립, 이순신 생태공원 조성, 관왕묘 재건 등을 추진한다.
묘당도 일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수군 본영이 설치되었던 역사적인 곳으로 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묘당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 및 이순신 유적 순례 코스를 개발하여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급면 덕동리와 윤동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현장을 관광과 접목한 교육·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삼도수군통제영과 봉수대, 활터를 재현하는 역사관광 지원화 사업, 갯벌 생태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여촌체험 자원화, 역사 돌레길과 어울림-해안길 광장을 조성하는 역사공원길 조성 사업, 인프라 시설 구축 등이 다.
완도=김광수기자

해남군 'BM활성수' 유기농업자재 등록

해남군에서 자체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BM활성수(발효퇴비차)가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됐다.
해남군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1일 3톤 규모로 BM활성수를 생산하고 있다.
BM활성수는 유용미생물(Bacteria), 광물(Mineral), 물(Water)의 상호 공생관계를 재현한 자연순환시스템을 활용해 천연압축으로부터 미세탈을 추출·농축해 생산된 물로, 생명체에 유익한 각종 영양소가 다량 함유돼 있다.
토양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해 토양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고품질 다수확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M활성수를 축산 사료와 급수에 첨가하면 소화율이 향상되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번식을 억제해 축사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 등록에 따라 관내 700여 전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확대 공급이 가능해지면 경영비 절감과 생산량 증대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취재본부

이승욱 강진군수, 11개 읍·면 들녘 영농현장 점검

벼 수확 현장 방문해 농업인들 노고 위로



이승욱 강진군수는 지난 14일부터 11개 읍·면 벼 수확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업인들의 위문에 나섰다. 올해는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도복, 흑백수가 발생해 상심이 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벼 수확 현장에서 만난 강진읍 장동

마을 김한탁 씨는 "바쁜 군정에도 들판을 다니시면서 영농현장을 찾아와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사내 간척지 등에서 벼 8.3ha를 경작하는 신전면 송천마을 강대권 이장은 "가을벌이 내리쬐어 시원한 물 한잔이 생각나던 터에 군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힘이 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들판에서 만난 많은 농가들은 벼 생산량이 지난해 비해 20~30%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승욱 군수는 "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벼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농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벼를 품종 제한없이 전량 수매를 실시한다. 막바지 건조관리를 철저히 잘해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읍 상점가, 라이브 문화쇼핑 '들썩들썩'

11월 22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

강진군은 코로나19 침체상황 속, 강진읍상가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유튜브 생방송으로 '라이브 문화쇼핑 축제' 연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강진군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라이브 문화쇼핑 축제'는 강진읍상가에서 진행되는 공연과 체험, 홍보와 판매의 모든 것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으로 생중계한다. 많은 군중이 모이는 공연 위주의 축제가 아닌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소규모 공연을 진행하며 생동감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의 중간 쉬는 시간에 강진읍상가의 각 매장을 돌며 점포 홍보와 상품을 판매한다. 고객들이 장소에 관계없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축제를 즐기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의회, 찾아가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유치 용문 풍력발전 시설·노력항 등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된 이번 현장방문에서 군의회는 유치 용문 풍력발전시설사업,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치사업, (옛)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13곳의 주요사업장을 찾아가 담당공무원과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의원들은 유치 용문 풍력발전 시설사업 현장에서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 유지를 위해 산림 보존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노력항에서는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상호 의장은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발로 뛰며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